한라시론

생각하는 정원의 코로나 이후

성 주 엽
생각하는 정원

제주를 방문하는 주요 국빈과 저명인사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생각하는 정원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던 일반적인 곳이 아닌 Creative 하고 Unique 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하는 정원에 외국인 방문객이 끊어진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개원한 지 30년이 돼가면서 수많은 난관을 지나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가장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진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정원 내외부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이제 겨우 뒤를 돌아보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겪은 시련들을 힘겨워 했는데 15개월이 지나는 지금 어쩌면 생각하는 정원이 가는 길을 위해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충격이 아니었다면 변하려 하지 않았을 것 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은 온라인에 대한 절실함을 일깨워줬고 그 자극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홈페이지로 고객들에게 실시간 정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이 거의 없던 2020년에 정원 내부의 정원수들을 이동 재배치해, 새로운 공간인 향나무 정원, 브랜드 존, 엘림 동산을 조성했다. 뷔페 시설로 운영되던 정원 내 식당은 고객 감소로 운영이 불가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뷔페 시설은 고위험군으로 지정돼 앞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단품 메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당의 장기 휴업으로 근무하던 직원들마저 퇴사하면서 방향을 찾지 못해 1년 동안 문을 닫아야만 했다. 지금은 실내를 리뉴얼해 아름다운 정원 뷰에서 제주 통갈치구이와 조림을 즐길 수 있는 제주 로컬 푸드 레스토랑으로 멋있게 변신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방문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한다는 토인비의 이야기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 본다.

배나무 분재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면서 독립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새가 한쪽을 쪼아먹어 상처 입은 열매는 빠르게 물러진다. 물러진 열매는 과육의 진액이 급속히 빠지게 되면서 곧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 모습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 안에 있던 씨가 땅에 떨어지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일정한 시간을 보낸 후에도 여러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땅속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독립은 시작된다. 독립은 혹독한 시간을 마주하고 부딪쳐나가면서 견뎌내는 과정 속에 새로운 출발이 잉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떨어져 가는 배와 떨어진 배에서 희망을 보았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하는 정원의 새로운 도약에 쓴 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동안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해 온 생각하는 정원이었기에 앞으로도 제주다움을 간직한 제주의 자랑이 되기 위해 생각하는 정원답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정원이 가는 길은 나무처럼 진실하게, 최고의 원재료로, 성실한 노력으로, 문화와 교육을 생각하며, 순간이 아닌 지속으로, 모방이 아닌 Origine으로, 관광보다는 문화로, 마케팅보다 진실로, 유통보다는 농부의 마음으로 가고자 한다.

사설

지역감염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큰일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가 올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학교,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지역에서 두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11일 하루동안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들어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중 73.8%에 해당하는 79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최근 추세를 보면 지난 3일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학교, 직장 등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대중목욕탕 관련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소규모 연쇄감염 역시 끊이지 않아 도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지역은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우선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이 적잖다는 점이다.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젊은층(10대·20대)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염려된다. 이달 들어 발생한 10대와 20대의 확진자가 전체의 6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연령층보다 활동량이 많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느슨한 방역의식도 문제다.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에 육박하는 등 제주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간첩조작 피해자'조례, 명예회복 새 전기

제주지역에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그 가족들이 큰 고통속에 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제주 출신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들 중 일본내 친인척들의 조총련 활동 등을 빌미로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누명을 뒤집어쓴 이들이다. 최근 몇 년새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행위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후유증 치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당위성이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강성민 도의원은 최근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건의 정의와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 제안했다"고 한다.

간첩조작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잊지 못할 슬픈 '역사'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2006)는 전체 간첩조작사건 109건 중 34%인 37건이 제주 관련으로 기록했다. 진실화해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의 현황 등을 통해 본 제주지역 피해자는 39명이다. 이 중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 35명, 나머지 4명은 재심중으로 알려졌다. 무려 30명 넘는 피해자 도민과 그 가족들이 아직도 당시 고통에 신음하며 명예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4·3이 피해자 배·보상과 수형인 특별재심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으로 '완전한 해결'로 가는 상황이다. 간첩조작사건도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아픔 치유에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5인 모임 제한 완화 제주는 언감생심?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홍남기 총리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400~600명대를 보이는 등 어느정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가운 이야기이지만 요즘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하는 제주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10일 24명에 이어 11일에도 13명으로 두자리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 벌써 반 년 가까이 국민들은 만남의 자유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금지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만날 기회조차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오랜 제약으로 지친 국민들이 국내 여행지를 찾는 일이 부쩍 늘며 제주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방역해이가 겹쳐 4차 대유행을 맞고 말았다.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를 하더라도 제주는 예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백신 접종이 원활했다면 도민사회 우려가 덜 할 수 있지만 공급이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가 전국적인 모임 인원 제한 완화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하루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여부는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도민들은 방역 위기 속 제주도가 컨트럴타워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in

"서울·부산·제주만이라도 백신 부탁"

황교안 미국 방문·요청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미국을 방문,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백신 1000만 분을 지원해달라"고 부탁.

12일 황 전 대표 측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회의 실장과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 등 구체적인 지자체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청.

일각에서는 이같은 언급이 '백신 편가르기'라는 지적. 부미현기자

중앙로 횡단보도 신속 추진

○…지난 37년간 지역 최대 현안의 하나인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 시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

시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중앙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존 출입구 철거 공사를 야간에 진행.

안동우 시장은 12일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 등 교통약자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주문. 이윤형기자

"제주 교육격차 실증분석 없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격차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12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달 초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 분석' 현황을 받은 결과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은 실증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도교육청측은 수치 분석 대신 교원 등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부 고

문상진(제주시청) 아버지 **남평문공 창식(前 고성1리 이장, 향년 67세)** 께서 서기 2021년 5월 11일 20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5월 13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1년 5월 14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하귀농협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 해안동 가족선영

부 인 김복문
아 들 문상진
문상보 며느리 고다연

※연락처 : 김복문 010-8833-3707
문상진 010-5431-3707
문상보 010-8885-442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성민 (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13일

부 인 김완선
아 들 현동수 며느리 임영순
동근 한동숙
딸 현순화 사 위 고영배
순일 오창민
순애 고경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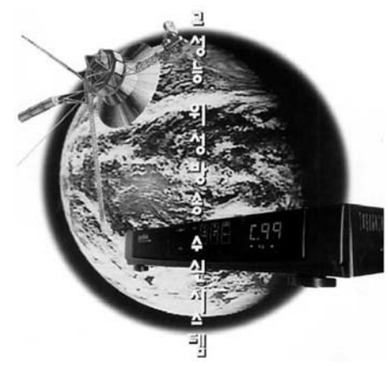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